

회비납부는 기본 의무

지난해(2000년도) 회비납부 실적은 목표액(6천만원)의 83.5%인 5천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창회이후 최고 실적으로 매우 고무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 사승사육 농가수를 1만호로 추산할 때 10%에 이르는 미미한 액수이기도 하다.

보통 한해 거출된 회비가 3천5백여만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지난해 회비 징수 실적은 큰 폭의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협회장 선거와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하게도 협회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년도 협회비 납부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

그 동안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은 지회의 경우 지회장과 사무장 등 2명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99년 12월 대의원 규정이 개정되어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에 비례하여 대의원수를 증감하도록 했다. 회비를 납부한 회원 10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함에 따라 회원을 많이 확보한 지회는 그만큼 의결권 및 투표권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각 지회의 성향에 따라 응립하고자 하는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그에 비례한 회비 납부에 열의를 보인 것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협회장 선거도 끝났고 앞으로 4년 동안 「한국양록호」를 이끌

합장이 선출되었다. 한국양록호가 좌초되지 않고 험난한 파고를 헤치며 망망대해를 항해하여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는 건 합장(회장)의 역할에 해당되겠지만, 양록호에 승선한 승무원(임원)과 승객(회원)의 지원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비록 대의원의 성향에 맞지 않는 회장이 선출되었다 할지라도 회비납부와 연결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응졸하게도 지지했던 후보자가 낙선되었다고 해서 회비 납부를 거부한다던가 회무를 외면하는 처사는 지역 양록인을 대표할만한 지도자 그릇이 못된다고 본다. 회장 선거 때문에 대의원수를 다수 확보하기 위해 회비납부에 열의를 보인다, 선거가 없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것은 너무 속보이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더더구나 회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협회장 선거를 매년 실시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주지하다시피 회비 납부는 회원의 기본 의무며, 회비는 우리의 권익을 위한 협회의 사업활동비로 쓰이고 있을 뿐이지 협회장 개인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눈먼 돈이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누가 회장이 되면 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어느 대의원(지회장)의 말이 지금도 귓전을 맴돈다.

2000년도에는 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회비 납부실적이 괜찮았는데 협회장 선거가 없는 향후 3년 동안 얼마나 회비가 잘 걸릴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미국산 녹용 홍보

지난 3월 19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미국엘크사슴협회 주최로 미국녹용 홍보 간담회가 열렸다.

미국 측에서 토드 후랭크회장을 포함 6명이, 한국 측에서 수입업자 2명·가공업자 2명·협회에서 2명 등 6명이 참석했다. 분위기로 보아 우리 협회에서 참석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표정이 역력했다. 미국 녹용을 홍보하는 자리에 국내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니 얼마나 깔끄러웠겠는가.

미국측의 대화 핵심은 미국 녹용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돼 있으니 안심하고 수입해서 먹으라는 것이었다. 캐나다에서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이 발생하고부터 우리나라 검역당국이 북미(캐나다·미국)산 녹용의 검역을 중단하자 미국 양록업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녹용 홍보차 방한한 것이다. 그들도 솔직히 미국 녹용의 수입금지를 해제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실토했다. 우리나라가 아니면 녹용을 마땅히 판매할 곳이 없는 그들로서는 양록업 존폐의 기로에 서있어 교육지책이 틀림없어 보였다.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다.

■ 미국 엘크사육 농가호수와 사육두수는 얼마나 되나?

2천호에서 15만두 정도 사육하고 있다. 북미에서 사육중인 엘크의 6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된다.

■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 녹용유통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미국의 녹용이 캐나다로 가기도 하고, 캐나다의 녹용이 미국으로 건너오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수의사가 원산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캐나다산 녹용을 미국산으로 둔갑시킬 수 없다.

■ 사슴사육의 주목적은 무엇인가?

엘크의 경우 녹용생산이 주목적이다.

■ 미국은 양록 후발국으로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텐데...

녹용을 생산하는 나라들은 자기들 녹용이 좋다고 할 것이다. 우리도 미국산 녹용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 미국에서 생산된 녹용을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는가?

홍콩과 중국에 약간 수출되고 거의 한국으로 들어간다.

■ 홍콩으로 수출된 녹용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웃음) 알고 있다.

■ 한국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칠레의 양록업 동향에 대해 알고 있으면 이야기 해달라.

야생사슴이 일부 있고, 기르는 사슴은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레드디어다.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지 못한다. 남미국가 중 칠레보다는 아르헨티나에 사슴이 많이 사육되고 있다. 역시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레드디어다.

우리와 약 2시간에 걸쳐 간담회를 마치고 그들은 한의사들이 설립한 (주)한의유통사업단 관계자와 모임을 갖고 교류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전체에서 생산된 엘크 생녹용이 약 6만 kg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체 녹용의 50%에 이르는 양이다.

최대한 국내 한의사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그들은 오는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미국 미시간주 벨레어에서 개최되는 북미지역 엘크녹용 품평회에 대한한의사협회 대표단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녹용을 뭐하러 생산하며, 그들의 녹용 품평회에 국내 한의사들이 뭐하러 가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변화와 생존

개구리를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가스를 켜 보자. 갑자기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금방 뛰쳐나오지만 서서히 온도를 높여 가면 '뜨거운데, 뜨거운데' 하면서도 뛰쳐나오지 않고 결국은 그대로 죽는다고 한다.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 적응하지 못하면 생물이든 조식이든 똑같이 망하는 것이다. 양록업도 변해야 한다. 고객이 있고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의 생사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느냐에 결정된다고 한다. 이 '생존의 법칙'은 양록업경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대를 거치면서 경쟁력 있는 농가를 보면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환경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한때 성공하였다가 사라져버린 농가를 보면 한때의 성공요인에 집착하여 환경변화를 외면한 채 안주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야말로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기본전제인 것이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환경의 파고나 변화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서서히 데워지는 물 속에서 안이하게 헤엄치는 개구리 신세와 같은 양록인은 없는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농가는 위태롭다.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최근 농가부채문제를 접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정책의 실패', 'IMF의 쇼크'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환경변화에 둔감' 했다는 책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우리 양육업의 미래는 앞으로 양육인 스스로가 어떻게 환경변화에 새롭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희보 월간발행 실효성 시비

지난 14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일부 후보자가 소위 선거과정에서의 부당함과 협회운영 문제점에 대해 전문지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한다. 그 내용의 진위여부 및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상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후 언급할 기회를 보기로 한다.

다만 협회지의 월간전환에 대하여까지 알가알부한 대목에 대해서는 부득이 몇 자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의 요지는 협회지 월간 전환으로 월 2천만원의 소요경비가 발생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기존의 월간지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우선 물어보자. 격월간에서 월간발행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경비소요가 월 2천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이런식의 선동이 직전임원 및 현직 지회장의 신분으로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자각해줄 것을 바랄 뿐이다.

사무처의 집계에 의하면 협회지 월간발행으로 늘어난 광고료 수입은 제작비와 증원된 인건비를 제하고도 기백만원이 남는다. 이러한 재정상의 안정기반 구축은 차치

하고라도 협회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회원농가에 제공하는 커다란 기능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회는 1만여 회원농가의 의견으로 그동안 즐기치게 정부에 대해 사슴을 주요가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 돼지, 닭 등과 함께 4대 주요가축으로 하여 각종 정책에서 동등한 처우를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소위 3대 주요축종들이 그들 나름의 노력없이 그만한 위치에 도달한 것이 아니다.

단체를 구성해 힘을 모으고 자신들의 임역할을 위해 협회지를 진작부터 월간 전문지로 발행하여 왔던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그들 분야마다 3~4개씩의 전문지들이 발행되고 있지만 협회지가 가장 영향력있는 매체로서 산업발전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양육업계에도 이미 십수년전부터 전문지가 월간으로 발행되어오고 있으며 일부는 격주간으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정보를 양육인들이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오직 협회만이 격월간에 머물러 왔던 것이다. 이로인해 협회의 기능이 둔화되고 회원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협회지의 월간전환은 시기적으로 당연한 일이며 중대한 발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실효성 여부는 참여와 협조속에 지켜볼 일이다. **민국양육**